

2024. 6. 29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

처장	김진규	02)2290-6351
녹지팀장	조은경	02)2290-6490
관련 누리집	www.sisul.or.kr	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올림픽대로·강변북로에 '서울색 꽃길', 서울 찾는 방문객 맞는다

- 서울시설공단, 인천·김포공항 등에서 시내 진입로에 '스카이크랄색' 꽃길 조성
- 올림픽대로 개화C부터 1km, 가양대교 북단인근 2km 코랄작약·아주가 등 식재
- 한국영 이사장 “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첫인상 선사, ‘매력서울’에 힘 보탬 것”

- 인천·김포국제공항 등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‘환영’의 의미가 담긴 꽃길이 조성됐다.
- 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, 이하 ‘공단’)은 올림픽대로·강변북로 서울 진입로에 올해 서울색인 ‘스카이크랄’ 계통 꽃길을 조성해 서울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매력적인 첫인상을 선사한다고 밝혔다.
 - ‘스카이크랄’ 색은 서울시가 선정한 2024년 서울색으로 시민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찾는 ‘한강의 핑크빛 하늘’에서 추출된 색상이다.

- 이번에 조성된 꽃길은 올림픽대로 개화IC~88분기점 사이 약 1km,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과 한강대교~동작대교 사이 약 2.3km 구간에 조성된다.
- 7월 말까지는 코랄작약·아주가·핑크 안개꽃·붉은 메밀꽃·베고니아 등 화사한 꽃을 만날 수 있으며, 가을에는 백일홍·황화 코스모스, 봄에는 코랄작약·꽃양귀비 등 계절별 다른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끔 조성할 예정이다.



- 공단은 내년까지 추가로 ‘환영 꽃길’을 조성할 계획으로, 관광객 등이 주로 많이 유입되는 동선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.
-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“차창 너머 만나는 ‘서울’이라는 도시의 첫인상이 화사한 꽃을 통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을 한층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- 한편, 서울시설공단은 6월 한 달간 서울 시내 곳곳에 시민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매력 공간을 조성해 선보이고 있다. 서울월드컵경기장, 고척스카이돔, 서울어린이대공원, 청계천, 서울추모공원 등에서 다양한 경관 조성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 바 있다.